

보험

Sector Issue Brief

2026. 06. 15

Check Point

- 비급여 도수치료 관리급여로 전환
- 하반기 손보사 예실차 개선 요인
- 회사별 영향 +500~1,000 억원 추정

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 관련

| Analyst 전배승 | bsjun@ls-sec.co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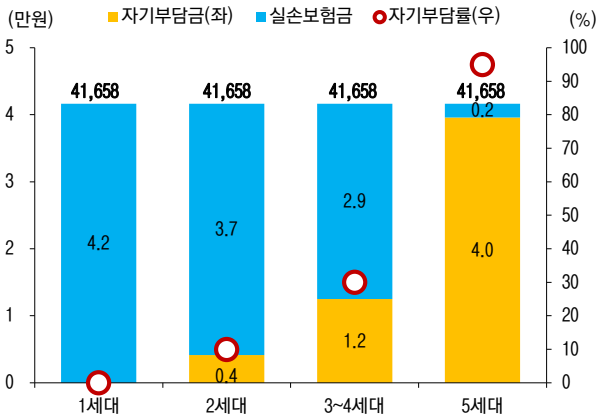
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: 수가 43,850원

- ▶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회를 통해 관리급여 대상인 도수치료의 수가와 급여기준안을 마련. 7월부터 도수치료 수가는 43,850원(본인부담률 95%), 급여기준은 주2회(연간 15회)로 결정됨
- ▶ 또한 도수치료 이전에 2주간 기본 물리치료와 단순 재활치료를 선행해야 하며, 수술/골절 등의 경우 연간 최대 24회까지 급여로 인정됨. 도수치료의 평가주기는 3년으로 하고 재평가 시 급여유형 및 전환원칙 등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
- ▶ 도수치료가 포함된 근골격계 질환의 연간 실손보험금은 2.7조원으로 전체 실손보험금의 16%를 차지함. 특히 도수치료의 경우 보험금 지급규모가 약 1.5조원으로 가장 큰 비급여 단일 항목이며, 지속적인 오남용 우려로 인해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됨

하반기 손보사 예실차 개선 요인. 풍선효과 방지가 관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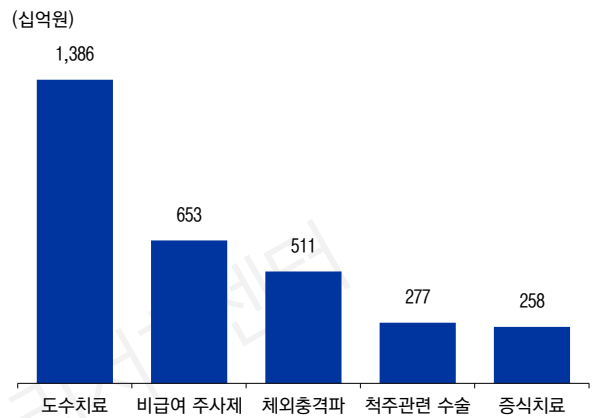
- ▶ 현재 상위 손보사의 연간 도수치료 보험금 청구액은 1,500억원 내외이고, 건당 10~15만원 수준으로 파악됨. 관리급여 편입으로 단가가 최대 1/3 수준까지 하락함에 따라 예상되는 보험금 감소규모는 회사별로 500~1,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
- ▶ 게다가 신규 5세대와 올해 7월부터 재가입 주기가 도래하는 4세대의 경우 자기부담률이 95%로 높아 도수치료 회당 보험사 부담금은 2천원에 불과하며, 수가하락으로 도수치료 의료공급 또한 감소할 것으로 보여 긍정적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음. 관리급여 도입영향은 기존 회사별 예상보험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하반기부터 즉각적인 예실차 개선효과가 예상됨
- ▶ 관리급여 도입은 큰 폭의 수가하락과 함께 전체 빈도와 과잉진료 건수가 동시에 감소한다는 측면에서 손보사 손익에 긍정적. 특히 실손보험의 비중이 크고 실손 손해율이 높은 2위권 손보사(현대해상, DB손보)의 수혜가 더욱 크게 나타날 전망
- ▶ 관리급여는 사실상 의료 이용량 조절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도수치료에서 의료남용 개선이 나타날 경우 다른 비급여 과잉진료 항목으로도 관리급여 지정이 확대될 수 있음
- ▶ 향후 관건은 과거 비급여 통제조치와 마찬가지로 풍선효과의 방지어부가 될 것. 실제로 실손 청구금액 2~3위에 해당하는 비급여 주사와 체외충격파의 경우 관리급여에 포함되지 않았고, 비급여주사 보험금은 지난해 32% 큰 폭으로 증가. 도수치료의 급여화로 의료기관에서는 기타 비급여 항목의 취급을 더욱 늘릴 유인이 커진 상태

그림1 관리급여 지정 후 실손 가입자 회당 도수치료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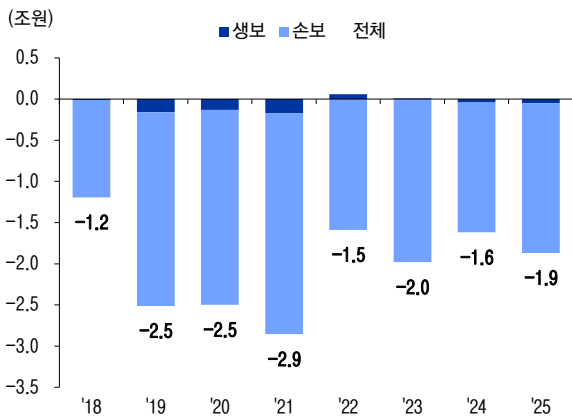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위원회,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2 실손보험금 지급액 상위 5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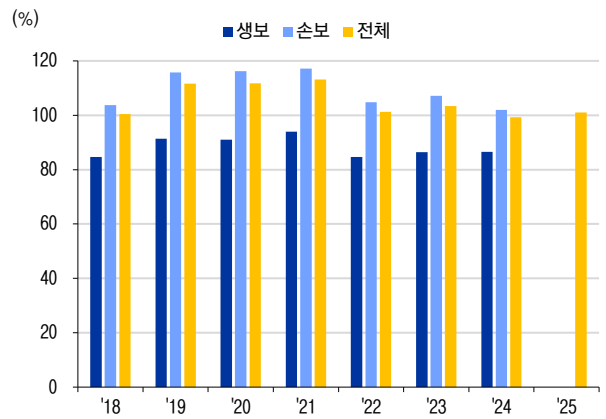
자료: LS증권 리서치센터, 24년 연간 기준

그림3 실손보험 관련 보험손익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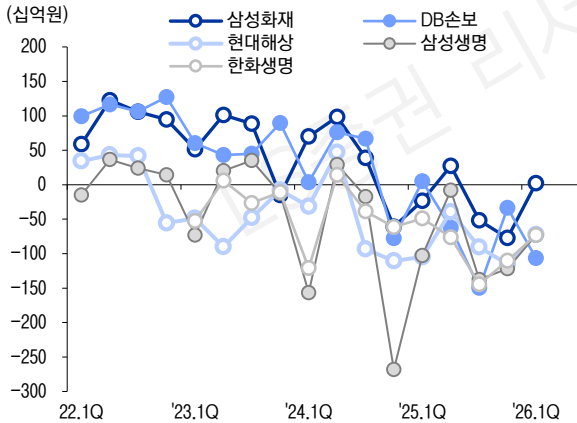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위원회,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4 실손보험 경과손해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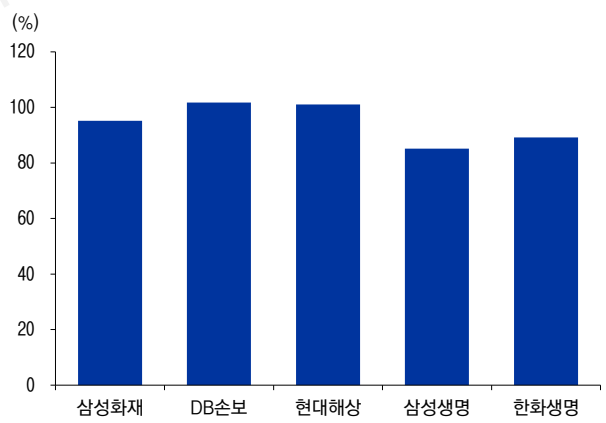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위원회,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5 회사별 보험금 예실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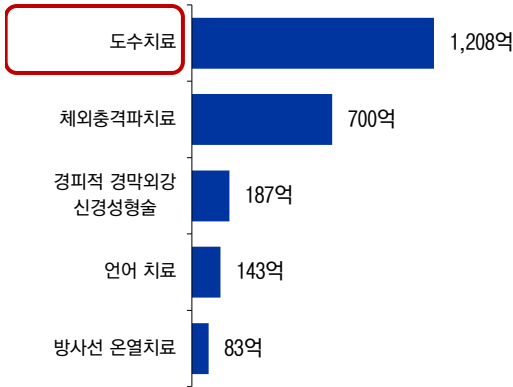
자료: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6 회사별 위험손해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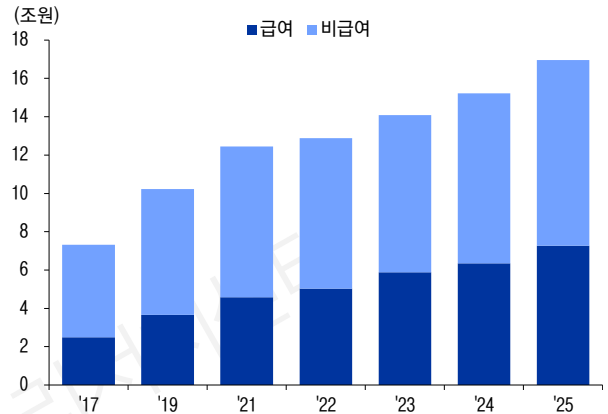
자료: LS증권 리서치센터, '26.1Q 기준

그림7 관리급여 후보 대상군과 월평균 진료비



자료: LS증권 리서치센터, 월평균 진료비는 24년 3월 기준

그림8 실손보험 급여와 비급여 지급보험금 추이



자료: 금융위원회,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9 주요 치료항목별 실손보험금 현황

(단위: 백억원)	'23년	'24년(a)	'25년(b)	비중	증감(c=b-a)
전체 ¹⁾	1,408	1,522	1,697	100.0%	175(11.4%)
근골격계 질환 ²⁾ (도수치료 등)	222	253	269	15.8%	16(6.3%)
통원 비급여주사제 ³⁾ (영양제 등)	73	79	104	6.1%	25(31.9%)
암, 뇌·심혈관질환 관련	191	215	255	15.0%	40(18.9%)
로봇수술	20	27	47	2.7%	20(72.4%)
전립선결찰술	3	4	7	0.4%	3(64.6%)
하이푸수술	14	15	22	1.3%	7(46.0%)
척추 관련 수술(신경성형술 등)	36	41	39	2.3%	△2(△3.8%)

- 1) 상급·종합병원 및 병의원 등 요양기관 전체
- 2) 근골격계 질환 또는 상해를 진단받고 비급여 재활 및 물리치료료가 청구된 건
- 3) 통원 비급여 주사료가 고액 청구된 건(암 관련 진단을 받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등 제외)

자료: 금융위원회

그림10 실손보험 세대별 주요 보장내용

구분	1세대 (舊실손)	2세대 (표준화실손)			3세대 (新실손)		4세대
		선택형 I	표준형	선택형 II	표준형	선택형 II	
판매시기	~ '09.9월	'09.10월 ~ '15.08월	'13.1월 ~ '17.3월	'15.9월 ~ '17.3월	'17.4월 ~ '21.6월		'21.7월 ~
자기부담률	손보 0% 생보 20%	10%	20%	급여 10% 비급여 20%	20% 특약 30%	급여 10% 비급여 20% 특약 30%	주계약(급여) 20% 특약(비급여) 30%
갱신	1~5년	3년	1년	1년	1년	1년	1년
재가입	없음	없음	15년	15년	15년	15년	5년
비중	17.10%	41.20%			21.60%		17.70%

자료: 금융위원회,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11 5세대 실손 주요 내용

<급여 관련 현행 4세대와 신규 5세대 비교표>

	현행(4세대)		신규(5세대)	
	입원	통원	입원	통원
자기부담률	20%	Max[20%, 1·2만원]	20%	Max[건보 본인부담률, 20%, 1·2만원]
임신·출산·발달장애	보장대상 아님		급여의료비 신규 보장	

* 1) 병·의원+약국 : 1만원, 상급·종합+약국 : 2만원 / 2) 전체 의료행위 합산 비용(가중평균) 기준

<비급여 관련 현행 4세대와 5세대 실손 비교표>

	4세대	5세대(현행)	
		중증(특약 I)*	비중증(특약 II)**
보상한도	·연간 5천만원	·좌동	·연간1천만원(병·의원 입원시 회당 300만원 한도 설정)
자기부담률	·입원 30% ·외래 Max[30%, 3만원]	·좌동	·입원 50% ·외래 Max[50%, 5만원]

*[특약 I]상급종합·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부담한도(500만원) 설정으로 중증보상 강화

**[특약 II]도수치료 등의 근골격계 이학요법, 비급여주사제, 미등재 신의료기술 등 면책

자료: 금융위원회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(작성자: 전배승).

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의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

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

-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

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

구분	투자등급 guide line (투자기간 6~12개월)	투자등급	적용기준 (향후 12개월)	투자의견 비율	비고
Sector (업종)	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단계	Overweight (비중확대) Neutral (중립) Underweight (비중축소)			
Company (기업)	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단계	Buy (매수)	+15% 이상 기대	89.3%	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존 ±15%로 변경
		Hold (보유) Sell (매도)	-15% ~ +15% -15% 이하 기대	10.7%	
		합계		100.0%	투자의견 비율은 2025. 04. 01 ~ 2026. 03. 31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(최근 1년간 누적 기준. 분기별 갱신)